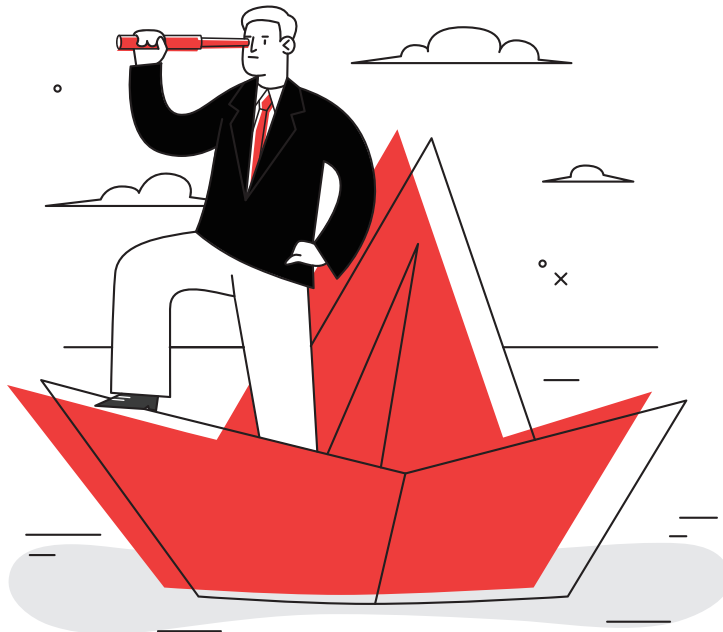


‘맨큐의 경제학’ 따라 읽기 2

경제학의 열 가지 기본원리

글. 권태혁 아리랑국제방송 기술센터 부장

이 책은 천 페이지에 가깝고, 서른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대한 내용의 전형적인 대학 교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제11장 마지막 제36장, 거시경제의 쟁점을 소개했다.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거시경제의 쟁점을 통해 경제학의 쓰임새와 이에 관해 다양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번에는 제1장 경제학의 열 가지 기본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어떤 가정이든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누가 저녁을 준비해야 할지, 누가 청소를 하고, 누가 프라이드치킨을 먹을지,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그 대가로 누가 무엇을 얻을 자격을 얻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한 가정은 각 구성원의 능력과 노력, 희망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식구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가정은 가족 간의 사랑으로 능력에 따라 일해서 소득을 얻고, 필요에 따라 자원을 나누겠지만, 사회는 훨씬 더 냉정하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자원을 얻는다.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결정 방식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처럼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희소성(稀少性)이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한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원하는 최고의 생활 수준을 누구에게나 보장해 줄 수 없다. 경제학을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일이다. 경제학이란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무수히 많은 가격과 기업 간의 행위에 따라 자원 배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경제학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얼마나 일하고 무엇을 사고, 얼마나 저축을 하고, 그 저축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등과 같은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 경제학자들은 개인들의 결정뿐 아니라 개인들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수많은 판

매자와 구입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한 재화(財貨)의 거래량과 가격이 결정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국민 평균소득의 증가, 일자리가 없는 국민의 비율, 물가 상승률 등과 같이 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그 추세도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다.

경제학에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몇 가지 기본원리를 공유하고 있다. 이 책에 설명된 기본원리는 열 가지이다. 열 가지의 기본원리를 통해 경제학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결정

경제란 살아가며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한 경제의 움직임은 그 경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움

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된 네 가지 기본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면, 대체로 그 대가로 무엇인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사결정이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는 다른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 일생을 의사로 살게 된다면, 판사나 변호사로서의 삶은 포기하는 것이다. 점심 먹고 책을 읽어 지적 능력의 노화를 지연시킬 것인지, 동료들과 남들 흉을 보며 우의를 돈독히 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 시간을 배분하는 문제이다. 또 월급을 어떻게 쓰는데 관한 문제도 있다. 맛있는 걸 사 먹을 수도, 옷을 사 입을 수도,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도 있다. 거의 모든 것이 제로섬이다. 한 곳에 쓰면 다른 곳엔 쓸 여유가 줄어든다. 사회 전체로 넓혀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또 다른 차원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는 깨끗한 환경과 소득 증가 간의 선택이다. 환경을 위한 규제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조금씩 이익을 주지만, 생산비용을 올린다. 생산비가 오르면 이윤이 줄고 임금이 낮아지며, 생산된 제품 가격은 오른다. 가격이 오르면 그에 맞춰 소비도 줄어들어 사회적 후생이 나빠진다. 사회가 직면하는 또 다른 선택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관계(trade-off)다. 효율성이란 제한된 희소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고, 형평성은 경제발전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다. 효율성이란 파이를 크게 만

드는 것이고, 형평성은 파이를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이다.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득세, 사회복지제도, 실업보험제도를 통해 경제발전의 혜택을 고르게 나눌 수 있지만, 이러한 재분배 정책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줄게 하여 사회적 후생(厚生)이 나빠질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경제학을 배우는 것은 이러한 현실의 상충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선택한 경우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행복한 예를 들자면, 여성들의 경우 배우 현빈과 결혼하는 대가는 공유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현빈과의 결혼생활의 기회비용은 공유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합리적 판단은 한계(限界)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제학자들은 대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는 가정이 경제학의 기본원리라는 사실은 경제학자들의 많은 빚나간 예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인다. 사람들이 모두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받아들이는 편이 옳겠다.

합리적인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의사결정이 흑백논리에 따라 분명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하러 할 때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끓을까 아니면 배불리 먹을까’ 라기보다는, ‘밥을 한 숟갈 더 먹을까’, ‘고기를 한 점 더 먹을까’ 하는 것이다. 수능시험을 준비할 때의 선택은 시험을 아예 포기해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밥 먹는 시간을 빼고 공부만 해서 만점을 받겠다는 선택이 아니다. ‘지금 한 시간 더 공부를 할까, 아니면 그 시간에 TV를 보거나 게임을 할까’의 선택이다. 경제학자들은 이처럼 사람들이 현재의 행동에 대한 계획을 조금씩 바꾸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한계적 변화(marginal changes)라고 부른다. 한계적 변화란 사람들이 하는 일의 맨 끝부분에 일어나는 변화를 뜻한다. 쉽게 이해되는 내용은 아니다. 우리의 언어에 적당히 대응되는 단어가 없어서 그런 듯하다.

우리가 피자 한 판을 콜라와 함께 먹을 때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소비할 재화는 피자 한 조각과 콜라 한 잔, 이 두 가지 재화를 각 선택의 시점에 먹을 수 있다. 맨 처음 선택은 대개 피자 한 조각을 먼저 먹을 것이다. 한 조각을 다 먹은 후의 다음 선택은 아마 콜라 한 잔일 것이다. 만약 아침과 점심을 모두 못 먹은 상태라면 두 번째 선택도 피자 한 조각이 될 수도 있겠다. 세 번째 선택은 분명히 콜라 한잔을 선택해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단위, 한 단계를 한계적이라 한다.

피자 한 조각, 콜라 한 잔, 공부할 때의 한 시간을 각각의 상황에서 한계라 한다.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항공사가 예약 없이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에게 얼마를 받아야 할지 결정한다고 하자. 좌석이 200개 있는 비행기를 목적지까지 운항하는데 드는 비용이 10만 달러가 소요된다면, 좌석 하나당 평균비용은 500달러이므로 이 항공사는 좌석당 500달러 아래로 팔아선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빈자리가 10개 남은 상황에서 승객을 한 명 더 태운다고 추가로 발생하는 운항 비용은 기내식을 제외하고 0달러일 것이다. 기내식 비용이 100달러라면 100달러 이상만 받으면 항공사는 무조건 남는 장사다. 이런 단계에서 한계적으로 이루어진 항공사의 합리적 결정은 200달러에 그 승객을 태우는 것이다.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클 때만 그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위의 예에서 항공사의 한계비용은 기내식 비용 100달러이고 한계편익(限界便益)은 100달러(200달러 - 100달러)이다.

①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誘因)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incentive)이란 처벌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따져봐서 결정을 하므로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은 경제학 분석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경제적 유인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하는 데도 중요하다. 사과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사과를 덜 먹을 것이다. 동시에 과수원 주인들은 사과 생산

을 더 늘리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높은 시장가격은 소비는 줄이고 공급을 늘리게 하는 유인을 제공한 것이다.

정책담당자들은 경제적 유인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많은 정책이 사람들이 받는 혜택과 부담해야 하는 비용구조를 바꾸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휘발유에 세금이 더 부과되면 더 작고 연비가 좋은 차를 선택할 것이다. 휘발유세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에서 미국보다 소형차를 많이 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높아진 휘발유세는 대중교통 수단을 더 이용하게 하고 직장이 밀집한 도심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원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음의 세 가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① 자유 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교체되어 둘 사이의 갈등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기대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전 정권과 변함이 없을 듯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의 여러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경쟁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貿易)은 운동경기와 같이 한 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패배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 반

대다. 두 국가 간의 무역(자유 거래)은 양국을 모두 이롭게 한다.

그 이유는 무역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면 잘 알게 된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직장을 구하고 있다면, 그는 다른 집의 구직자와 경쟁하는 것이다. 각 가정은 가장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 하므로 물건 구입 과정에서도 다른 가정과 경쟁한다. 이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 각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스스로 농사도 지어야 하고, 옷도, 집도 직접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거래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 각 국가는 그들이 유능한 분야에 특화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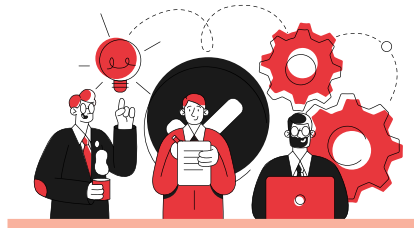
이 이야기는 국가 단위로 볼 때는 사실인 듯하다. 국가를 하나의 개체로 볼 때는 분명히 이익이 된다. 그러나 나라 안의 여러 계층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우리는 자본에 국적이 사라지고 연구개발, 마케팅과 생산이 국경을 넘어 분리되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세계 전 지역이 상품 시장이 된 기업의 고학력을 기반으로 한 숙련(熟練)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은 점점 늘어가는 반면에, 생산 기반이 개발도상국으로 떠나버린 제조업의 육체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은 추락하고 있다. 두 계층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는 중인 듯하다. 미국과 영국의 저임금 육체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 낸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 브렉시트(Brexit) 상황은 경

제학자들이 ‘자유 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며 통치고 넘어갈 수 없게 만든 듯 보인다.

● 일반적으로 시장(市場)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지난 20세기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그 후반부에 발생한 소비에트 연합과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일 것이다. 그 국가들은 공무원들이 희소 자원의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국가 경제를 운영해 왔다. 이 계획(計劃) 담당자들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 생산주체, 소비량과 소비주체까지 결정했다. 계획경제는 정부가 국가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가장 잘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과거에 계획경제를 유지하던 나라들 대부분 과거의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제계획 담당자가 결정할 사항들을 무수히 많은 기업과 가게(家計)들이 대신 결정한다. 기업은 무엇을 생산하고 누구를 고용할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가게도 어떤 회사에서 일할지 어떤 재화를 소비할지 자유롭게 결정한다. 다수의 기업과 가게는 시장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시장가격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를 결정한다. 시장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자원을 배분한다. 고전학과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1776년 저술한 ‘국부론(國富論)’에서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다. 그것은 가게와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처럼 행동하여 바람직한 시장성과



경제학이란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무수히 많은
가게와 기업 간의 행위에 따라
자원 배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경제학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수단은 가격이다. 시장가격을 보고 소비자들은 구입을 결정하고, 생산자들은 그 가격에 따라 생산을 결정하게 된다. 그 결과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사회적 가치를 나타낼 뿐 아니라 그 재화의 생산 비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며 상호작용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 가격을 결정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한다.

애덤 스미스가 살았던 18세기 후반은 아직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매뉴

팩처(공장제 수공업)의 시대였다. 공장제 수공업(工場制手工業)이란 개인사업자들이 작은 점포에서 서너 명의 일꾼들과 함께 생필품과 편의품(便宜品)을 생산하는 초기 제조업의 형태 중 하나이다.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뒤에 나타난 기계제대공업(機械制大工業)보다는 규모나 인력적 측면에서 단출했다. 동네마다 여러 수공업 공장들이 난립하며 비슷한 용도와 품질로 서로 경쟁했을 것이다. 생산 업체들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빈번해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자유롭게 거래하는 시장이었으므로, 누구도 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당시가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활약하던 시기였을 것이다.

반면에 오늘날 시장의 모습은 몇몇 대규모 기업들이 생산자로 시장에 참여하고 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애플과 삼성은 스마트폰을 생산하며 각 제품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시장 지배적사업자(支配的事業者)로서 갤럭시와 아이폰 가격을 시장 상황을 살피며 스스로 결정한다. 몇 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하지만, 마치 그들 사이에 합의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비슷한 등급의 승용차 가격은 큰 차이가 없다. 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을 출간했다. 같은 해 조선의 왕 정조가 즉위했고,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대영제국과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시작했다. 시장 지배적 대규모 기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아담 스미스 시대의 시장이 오늘날의 시장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자원이 분배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지 않는 손이 대규모 기업들의 시장 주도권을 숨기는 데



이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좀 다른 논거(論據)도 필요해 보인다.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기구를 잘 유지할 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위해 개인이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농부가 자기의 수확물을 도둑질당할 것이라면 농사를 지을 리가 없다. 식당 주인도 음식을 먹은 손님이 밥값을 내리라 믿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한다. 이같이 정부가 법 집행을 통해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정부를 필요로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강력하지만 전지전능(全知全能)한 것은 아니다.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효율성(效率性)을 높이려는 경우와 형평성(衡平性)을 높이려는 경우다. 파이(pie)를 크게 키우려거

나 파이를 공평하게 잘 나누기 위해서다. 먼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경우 시장이 경제적 파이를 극대화하도록 하지만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처럼 시장이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하는 것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한 가지 이유는 외부효과(外部效果)다. 외부효과(externality)는 시장에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거래가 아무 상관 없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어떤 남자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공터에서 그 담배를 피웠는데 옆에서 놓고 있던 어린아이가 담배 연기를 함께 들이마시게 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담배를 사고파는 거래와 아무 관계 없는 어린아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다. 환경오염은 외부효과의 고전적 사례다. 보이지 않는 손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가 담배 판매를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여 담배 소비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감소시켜야 한다.

시장실패의 또 다른 이유는 시장지배력이다.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은 소수의 사람이나 기업이 시장가격에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일

마 전의 뉴스를 살펴보면, 국내의 지배적 기업의 총수가 시장의 지배력을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사법 제도적으로 특별히 따듯한 대접을 받고, 직접적 대가를 받지 않은 주요 언론들은 자발적으로 노골적인 옹호를 한다. 그 뇌물을 받고 복역 중인 전직 대통령의 형량과 비교해 그 반의반도 안 되는 기간의 실형을 살게 된 것을 놓고 보면, 전직 대통령이 딱할 지경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큰 활약을 펼쳐 국민의 후생을 향상시키려면, 경제권력에서 독립한 정부가 시장을 세심하게 규율(規律)해야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모든 사람이 좋은 음식과 좋은 옷, 충분한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하지는 못한다. 얼마나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개입의 중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잘 판단해 적용하는 데 있을 것이다.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앞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

보았다. 이러한 개별적인 의사결정과 상호작용이 모여 하나의 '나라 경제'를 이룬다. 다음 세 가지 원리는 나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한 것이다.

●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생활 수준의 차이는 엄청나다.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1천 달러 중반대로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추월한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주요국들의 역성장이 더 커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우리나라가 지표를 역전 시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평균소득은 삶의 질을 반영한다. 고소득 국가의 국민은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보유하거나 소비하고, 더 좋은 영양 상태와 의료혜택, 더 긴 수명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국가 간 국민소득 격차나 오랜 시간에 걸친 한 나라의 국민소득 차이는 왜 발생할까? 그 해답은 간단하다. 국민 생활 수준의 변화는 거의 모든 경우 국가 간 생산성(productivity)의 차이, 즉 노동을 한 단위를 투입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의 차이에 기인한다. 단위 시간당 근로자가 생산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많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고,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은 나라의 국민은 궁핍한 생활을 견뎌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생산성 증가율이 그 나라 국민의 평균소득 증가율을 결정한다. 생산성과 생활 수준의 관계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바는 매우 크다. 생산성에 비하면 다른 변수들은 부차적이다.

생산성과 국민 생활 수준의 관계는 정부

정책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면, 먼저 그 정책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능력에 기여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생산성 향상이고, 잘 교육받은 근로자들이 좋은 장비와 최신 기술로 생산 활동에 임하도록 보장해주면 생산성은 향상된다.

●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1921년 1월에 독일 일간신문의 가격은 0.3 마르크였다. 그러나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1922년 11월에는 7,000만 마르크가 되었다. 당시 독일의 다른 물건값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경제사상 가장 기록적인 인플레이션(inflation), 즉 물가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현상의 한 사례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독일이 전승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다. 독일처럼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은 겪지 않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은 종종 문제가 되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게나 중요한 과제다.

그럼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가? 높은 물가 상승률이든 지속되는 물가 상승이든 그 근원에는 통화량의 증가라는 원인이 있다.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가 될 수 있다.

●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相衝關係)가 있다

통화량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수준의

상승을 가져오지만, 통화량 증가의 단기 효과는 좀 더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통화량 증가의 단기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경제 내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그 결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 수요가 증가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지만, 그 과정에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 고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낮아진다.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적 상충 관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단기 상충관계는 아직도 경제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는 주제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단기적 상충관계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정책 담당자들은 이 단기 상충관계를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부지출이나 조세 규모,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단들은 잠재적으로 그 효과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수단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아직도 논쟁거리이다.

기본원리를 토대로 경제학이란 학문을 쌓아 올렸는지, 쌓다 보니 기본원리를 발견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까지 살펴본 경제의 열 가지 기본원리를 통해 사람, 시장, 경제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준비가 되었다. 앞으로 살펴볼 경제학의 내용은 기본원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